

近代的 어린이 概念의 形成과 住居의 變化

김 하 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전 봉 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주제어 : 근대적 어린이 개념, 근대 가족 개념, 근대 주거, 주거 변화

1. 序論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하나의 自給自足的인 생산단위로서 기능하는 가족공동체 혹은 마을공동체의 구성요소로서 생산적 기능이 강했던 것이 前近代社會 가족의 특징이라면, 생산활동이 생활의 장과 遊離된 근대사회에서의 家族은 近代國家의 직접적인 관리대상으로서 국민과 노동력의 재생산이 그 중심적인 역할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새로운 국민을 생산해내는 場으로서의 近代家族 혹은 家庭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어린이가 中心的인 존재로 부상하게 된다. 즉 근대기의 새로운 어린이 개념의 형성 및 변화는 근대기 주거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하지만 한국 주거사 분야에 있어서 어린이 개념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힘든 것이 실정이다. 이것은 근대적 어린이 개념이 ‘發展’, ‘進歩’ 등의 긍정적인 개념들과 밀접한 聯關下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타 개념들에 비하여 큰 抵抗없이 비교적 短期間에 정착되어 그것의 歷史性 자체가 큰 주목을 받아 오지 않았

기 때문에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근대적인 어린이 개념의 형성과 변화 과정 및 그로 인한 한국 가족의 변화를 통하여 한국 주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근현대 주거사의 일 斷面을 알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대상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어린이 개념으로 인해 住居觀 혹은 住居建築에 桴目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1920~1930년대와 1950년대 후반~1960년대의 두 시기를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근대적 어린이 개념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開港期의 일이며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기의 두 시기만을 단절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 고로 이 논문에서는 개항기에서 시작하여 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 하는 시기를 ‘近代前期’, 광복 후 시기부터 시작하여 1960년대를 중심으로 하는 시기를 ‘近代後期’라고 부르도록 한다. 近代前期는 어린이방이 주거에 도입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近代後期는 이것이 전사회적으로 확산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연구의 진행은 주로 담론과 도면 자료 등의 1차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근대적 어린이 개념의 형성과 그에 따른 가족 변화에 관해서는 연속간행물에 나타나는 어린이, 가족 담론을 수집, 분석하였고 어린이·가족 분야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어린이 관련 주거담론 및 주거도면은 연속간행물, 일반간행물 및 보고서류들을 통해 수집하였다.

2. 近代的 어린이 概念의 形成과 韓國 家族의 變化

2-1. 近代期 韓國 어린이 談論

20세기 초부터 1960년대 말까지 발간된 17 종류의 日刊紙 및 雜誌¹⁾로부터 발췌한 61개의 어린이와 관련된 계몽적인 내용의 담론들을 정리한 결과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추구하는 담론²⁾ 및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부모·가족·가정 인식을 추구하는 담론³⁾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어린이 담론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첫째, 근대기의 ‘發展=善’이라는 인식이 ‘發展하는 可能態’로서 어린이에게 가치를 부여하게 된 것과 둘째, 市場經濟의 활성화와 賃勞動化로 인하여 중상류계층에서부터 서서히 여성과 어린이가 노동으로부터 제외되게 된 현상이 있다. 한편 국가를 비롯한 근대기의 새로운 사회집단들은 어린이들의 새로운 가능성

1) 「東亞日報」, 「가명잡지」, 「가정잡지」, 「자선부인회잡지」, 「青春」, 「女子界」, 「新女性」, 「新東亞」, 「新家庭」, 「女性」, 「우리가정」, 「家庭의友」, 「女性界」, 「女性生活」, 「女苑」, 「주부생활」, 「새가정」

2) ‘어린이(자녀)를 무조건 꾸중하지 말고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어린이는 어른과는 다른 特別한 存在임을 이해해야 한다’ 등.

3) ‘어머니 된 자의 자각을 지녀야 한다’, ‘어린이를 위하여 家庭이 和睦해야 한다’ 등

을 활용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어냈다.

2-2 近代 ‘家庭’의 誕生과 韓國 家族의 變化

전근대사회에서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였던 지역·혈연공동체가 근대기에 축소·해체되면서 근대 국가에 의하여 ‘가정’이 만들어졌다. ‘가정’이란 일종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향하는 理想은 ‘사랑으로 맺어진 夫婦와 그들의 사랑스러운 子女로 이루어진 화목하고 평화로운 安息處’이며 ‘夫婦間의 사랑’과 ‘家庭의 和睦’이 제창된 배경에는 앞 절에서 살펴본 ‘어린이 개념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儒家적 가르침은 자정을 隱蔽되었고, 효성을 강조하게 하였다. 한편 아들은 가문을 잇는 자로, 여자아이는 가사노동력 또는 재물⁴⁾로 간주되어 부모의 노후를 담당하는 미래가정의 하부구조로 파악하였던 것이 일반민중의 일반적인 자녀관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상황하에서 특수한 일부를 제외하고 조선시대~근대전기에 걸친 어린이의 실태는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幼兒期를 지나면 거의 바로 어른 사회 혹은 노동력으로 편입되었으며, 빠른 혼인연령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어린이기’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1920~30년대에 이르면 한국사회에서도 일련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여성의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은 일부 중상류계층 가정에 있어서 母性役割의 전문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한편, 계층을 막론하고 불붙은 취학욕구는

4)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 파탄이 두드러졌던 1880년대에는 子女를 돈을 받고 파는 풍습이 만행되었다. (이정덕, ‘유교적 가족윤리의 해체 전기에 있어서의 가족윤리 실상’,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7호, 2000, p.140.)

가뜩이나 궁핍한 조선 하층민의 삶을 더욱 조이면서 자녀를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부양해야 할 존재로 바꾸어 놓게 된다.

3. 近代前期 住居內 어린이 空間의 導入

3-1. 近代期 以前의 어린이의 住生活

근대기 이전 한국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린이 및 결혼 전의 자녀들에게 별도의 방이 주어지는 경우는 없었고 어른들과 같이 방을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가족인원이 많아 한 방의 密度가 어느 이상의 되었을 때, 방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 연령 이상의 미혼 자녀끼리 방을 사용하는 발생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것은 우연히 그 방이 자녀들에게 위해서 사용된 것에 불과하며 그 방이 애초에 자녀 혹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즉, 이 시대의 방 분리 기준의 우선순위는 ① 男女 ② 位階 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며, '密度'라는 요소로 인해 轉用的인 사용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密度라는 요소는 물리적으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시대 사회의 빠른 혼인연령 및 사망연령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빠른 순환이 밀도에 의한 제약을 완화시켜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3-2. 近代前期 어린이 관련 住居 談論

근대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가족형태의 理想은 한국의 前近代的 가족유형이었던 父系 擴大家族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核家族制度를 한시라도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는 極端性을 띤 것에서부터 在來의 家父長的인 家族秩序를 약화시키고 좀 더 近代的인 家族秩序를 確立해야 한다는 등의 타협적인 성격을 띤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의 主張을 낳는다.

한편 어린이와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논의로서, 어린이만을 위한 독자적인 공간으로서의 어린이방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담론들도 나타난다. 이러한 주장들의 근거로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장소로서 어린이만의 獨自인 공간의 필요성, 어린이의 獨立心과 自立心을 養成하기 위하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장소의 필요성, 近代 學校教育體制의 확립에 따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린이방의 위치, 향, 환기, 재료 등의 환경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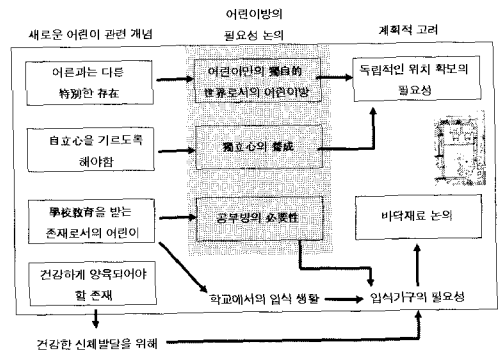


그림 1. 새로운 어린이 개념과 어린이방 필요성 논의 및 계획적 고려 간의 상관도

3-3. 近代前期 어린이방의 受容과 計劃

(1) 近代前期 어린이방의 受容

近代前期 어린이방에 대한 실태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朝鮮と建築」, 「開闢」, 「新東亞」, 「東亞日報」에 掲載된 住宅平面 중 도면상대가 양호한 것 151개를 골라 분석하였다. 샘플은 먼저 理想/實際의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실제로 건설된 주택을 다시 標準/非標準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①計劃室·公營住宅 ②실제로 건설된 官舍·社宅 ③실제

로 건설된 個人住宅』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1. 면적별 종류별 샘플의 분포와 어린이방의 유무

면적(평)	종류		합계
	계획안	실제안	
	계획안공영주택	관사사택 개인주택	
~9	0 / 1	-	0 / 1
10~19	4 / 17	0 / 7	4 / 24
20~29	8 / 17	1 / 12	9 / 30
30~39	1 / 5	2 / 11	3 / 16
40~49	-	1 / 11	1 / 11
50~59	-	2 / 4	2 / 4
60~69	-	0 / 7	0 / 7
70~79	-	0 / 5	0 / 5
80~89	-	1 / 2	1 / 2
90~99	-	1 / 1	1 / 1
100~109	-	1 / 3	1 / 3
110~119	-	-	0 / 0
120~129	-	-	0 / 0
130~139	-	1 / 1	1 / 1
140~149	-	1 / 1	1 / 1
150~159	-	1 / 1	1 / 1
160~	-	1 / 1	1 / 1
합계	13 / 40	13 / 67	26 / 107

面積別, 種類別로 어린이방의 具備정도를 살펴보면, 계획안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비율이 높으며, 관사·사택에서는 규모가 클 경우, 개인주택에서는 규모가 작을 경우에 그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계획안은 젊은 핵가족을 主對象으로 한 새로운 생활양식의 제안이 주목적이 되므로,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방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종종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官舍, 社宅의 경우, 接客機能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하여 접객공간의 계획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후 가족공간이 계획되기 때문에, 공간적 여유가 있는 대규모주택일 경우에 어린이방이 구비될 확률이 높다. 개인주택은 중규모의 경우 중류계층의 洋式주택, 大規模 邸宅은 보수적인 일식주택이 많기 때문에 중규모에서 어린이방의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時期別, 種類別로 살펴보면 20년대에서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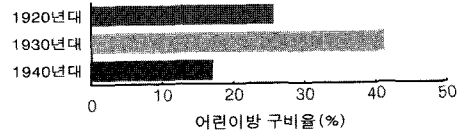


그림 2. 근대전기 시대별 어린이방 구비율 (%)

년대에 걸쳐 어린이방 보유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40년대에 들어서면 급격히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생활양식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래의 생활양식과 절충되는 과정에 의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어린이방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日常化, 生活化됨으로써 굳이 그것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린이방’이라는 명칭이 소멸된 것이라 생각된다.

(2) 近代前期 어린이방의 計劃

윗 절에서 분석한 도면 중 어린이방이 존재하는 샘플 41개를 대상으로 평면을 분석하였다. 샘플별로 向, 外氣에 면하는 면의 수, 바닥材料 등의 환경적 계획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위치는 방위상으로는 東南, 西南, 南向 등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위치한 것이 대부분이고 코너 등 외기에 많이 면하는 면이 선호되며, 바닥재료는 타타미와 온돌이 가장 많지만, 새로운 材料인 키르크(코르크)와 리놀륨도 종종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채광, 환기, 외부와의 접근성, 어린이의 활동성, 입식가구의 사용 등을 고려한 결과이며, 모두 어린이의 건강한 신체 육성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시기별로 어린이방과 주거 내 기타실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시대가 내려올수록 어린이방의 독립적 경향이 약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초기에는 기타 가족실과 떨어져 현관 근처나 서비스공간 영역 등에 독립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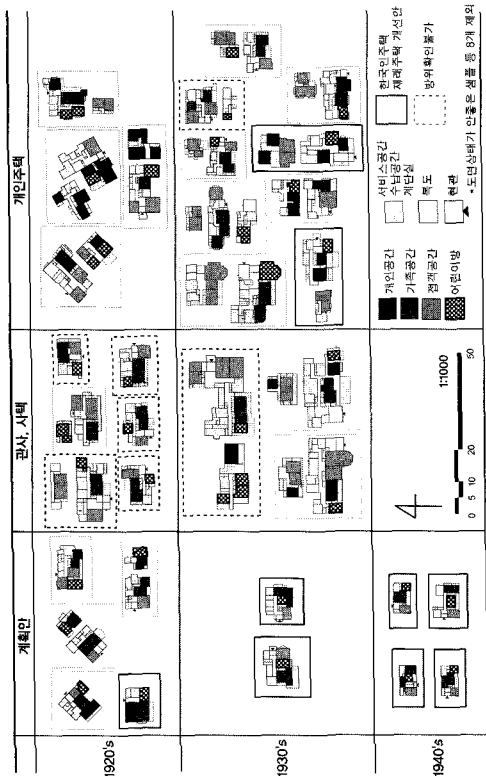


그림 3. 어린이 방이 있는 샘플의 시대별 종류별 분석도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해 뒤로 올수록 점점 더 가족공간 영역에 포함되는 경향이 보이게 된다. 이러한 현상 역시 앞서 논의한 것처럼 어린이방이라는 개념이 수용되는 과정에 의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3-4. 어린이방 概念과 在來住居

일부계층의 주거상황만을 다룬 앞 절까지의 내용과 달리 당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어린이방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당시의 매체 등을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어린이방의 필요성 및 계획 등이 大衆적으로 논의되는 단계는 아직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설령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을지라도 심각한 住宅難과 절대적 궁핍 하에 허덕이던 대다수의 조선사람들에게는 주거내에 별도의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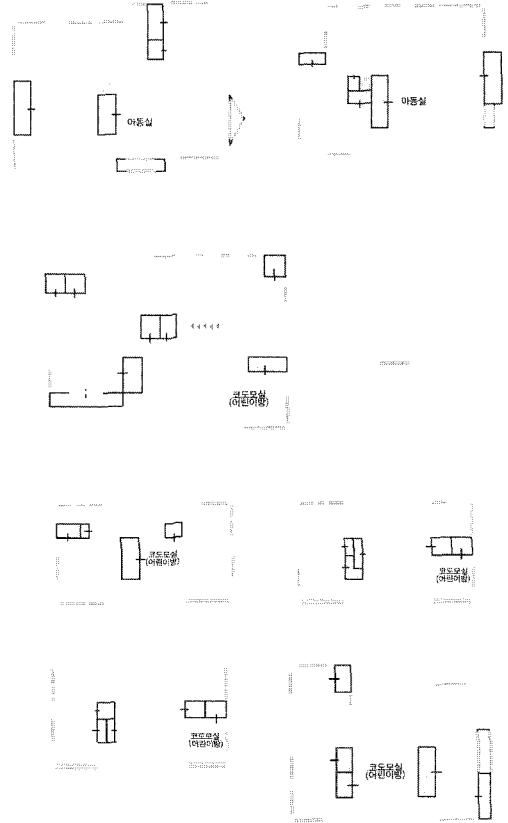


그림 4. 어린이방을 구비한 조선재래주거개량안과 조선인주택 분석도

방을 설치하거나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줄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조선인 건축가에 의한 주택계획안과 조선인 개인주택에서 어린이방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이들 안은 거의 모두 직사각형에 가까운 평면을 가지고 있으며, 남쪽면에 主居住室이 위치하고, 북쪽에는 서비스공간이 위치하는 겹집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하나의 안을 제외하고 주요 실의 명칭이 ‘주부실(안방)’, ‘주인실(사랑방)’, ‘어린이방’인데, 그림3에서 나타나는 전체 샘플에서 어린이방이 실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비하여 그림4의 안들에서는 7개 중 무려 4개 안이 주요실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점은 안채와 사랑채 혹은 안방과 사랑방이 떨어져 있었던 재래의

관습을 반영하기 위해 어린이방을 사이에 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근대기의 도시상황에 적응하는 양식으로 193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都市型韓屋은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개발된 근대도시 주택이라는 점에서 의의 깊은 주거유형이지만 특별히 어린이방 혹은 어린이 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한 흔적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책상을 놓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바닥마감재 문제는 이미 온돌로서 해결이 된 상태이며, 어린이방의 獨立性, 外部에의 開放性 문제 역시 韓屋의 室配置 特性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다. 주로 어린이방으로 사용되었던 문간방 등은 안방 등에 비하여 採光, 換氣 정도가 양호한 편이었기 때문에 어린이와 어린이방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요구를 큰 物理的 變化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4. 近代後期 住居內 어린이 空間의 定着

4-1. 混亂期의 住宅狀況 및 住生活

필자가 참고한 여러 자료들⁵⁾을 살펴본 결과 적어도 1960년대 전반의 주택상황은 韓屋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日本式 住宅과 文化式 住宅이 분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주거난과 혼란스러운 사회상황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가구가 단칸방에서 거주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방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960년대의 全國住宅實態調査 보고서에 나타난 실명칭을

살펴보면 樣式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주택에서 ‘안방’, ‘건넌방’, ‘사랑방’ 등의 재래 실 명칭이 사용되며 ‘침실’, ‘거실’ 등의 실명칭은 문화식 주택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현상들로 보아 적어도 1960년대 초에는 일반적으로 한국 재래의 가족적 양상을 바탕으로 한 주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4-2. 近代後期 어린이 관련 住居 談論

1950~60년대에 발간된 日刊紙 및 一般雜誌 등 文獻媒體를 바탕으로 이 시기 어린이방 담론들을 정리해 본 결과 1920~30년대의 어린이방 논의와 많은 부분 중복되므로 이 절에서는 近代後期에 이르러 정부의 주도 하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와 자녀간의 침실분리’에 관한 논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의는 먼저 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호 간의 프라이버시 논의와 가족구성원의 개별성 및 가족간 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의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러한 논의들은 주거공간에서 개인의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이어지게 되며 이것은 食寢分離로 대표되는 私的영역(개인영역)과 公的영역(가족 및 사회영역)의 분리 및 私的 공간 중에서 부부와 그 자녀, 異性 자녀간의 개실 분리에 관한 논의로 이어진다. 부부간의 새로운 관계는 기독교의 보급의 영향 등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게 되었고 동시에 가족생활공간으로서의 안방이 아니라 부부의 牙城으로서의 부부침실에 대한 요구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안방에서 자녀들을 배제하고 부부만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를 위한다’는 핑계로 어린이방을 새로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함께 일어났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5) 대한주택영단의 기관지 「주택」의 1960년 12월호에 게재된 ‘집계에 나타난 서울의 주택실태’, 1962년, 1964년에 서울, 부산에서 각각 시행된 주택실태조사에 따른 주택양식별 분포양상

같은 논의들을 거쳐 형성된 1960년대의 住生活의 기본원칙이 된 '식침분리'와 '부부-자녀간, 이성자녀간의 침실분리'는 혼란스러운 상황하 이러한 최소 원칙만을 만족시키는 '최소주거논의'로 이어져 이후 공영주택 계획의 기본원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4-3. 近代後期 어린이방의 受容과 計劃

(1) 近代後期 어린이방의 受容

이 시기에 작성된 주택 도면⁶⁾들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어린이방 명칭이 나타나는 도면비율은 계획안의 경우 56%, 개인주택의 경우 48%로서 계획안이 개인주택보다 다소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兩者의 어린이방 구비율 모두 近代前期의 계획안과 개인주택 샘플의 그것이 각각 33.3%였던 것에 비하여 다소 높아졌으나 오차범위를 생각한다면 두 시기 간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近代前期의 샘플에 비하여 近代後期の 그것이 평균적으로 建坪 및 방 個數가 적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近代後期에 어린이방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전후복구기에 실시된 현상설계안들에서는 근대전기의 그것과 비교해 주거 전체에서 어린이방이 점하는 면적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은 近代後期에 어린이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요구가 더 커진 결과라 생각할 수 있다.

(2) 近代後期 어린이방의 計劃

이러한 샘플들 중 어린이방 명칭이 포함되는 도면 50개를 골라 각각에 대하여 어린이방

의 향과 어린이방이 외기에 면한 면의 수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近代後期에는 近代前期에 비하여 어린이방 계획의 정석을 충실히 따르는 경향이 약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환경적인 계획 담론에서 그 기준이 약화되는 현상 및 실제로 계획되는 평면에서 이러한 기준을 따르는 정도가 약화되는 현상, 더불어 실 배치에 영향을 주는 담론들의 비중이 줄고 색채, 장식 등의 인테리어 요소에 관한 담론의 비중이 증가되는 현상은, 近代前期에 제창되었던 어린이방의 환경적 계획에 대한 엄격한 규칙들이 지속적인 지지를 얻을 만큼의 매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폐기처분된 것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4-4. 近代後期 어린이방의 定着과 住居의 變化

(1) 近代後期 計劃案의 特性

이 시기 주택계획안의 목적은 새로운 생활양식을 반영하면서도 한국의 주택,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쉽고 간편하게 건설할 수 있는 주택형의 제시에 있었기에 평면에 있어서도 경제성을 지향하여 가능한 요철이 없는 직사각형을 채택하였고, 결과적으로 평면 안에 방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집중형 평면이 주도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직사각형 평면은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도 자본주의 논리에 힘입어 향후 아파트 건축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한국주거건축의 하나의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 시기는 구조, 설비적인 시도와 더불어 이러한 직사각형이라는 틀 및 평수의 제한이라는 제약 속에서 역시 이 시기 동안 사람들에게 서서히 확산되어지는 새로운 가족관계를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혹은 주택이라는 물리적인 장치로 하여금 그러한 가족관

6) 「建築」(대한건축학회), 「住宅」(대한주택공사), 「전국주택현상설계안 도면집」(보건사회부),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 1954-1970」, 「空間」, 「여원」, 「주부생활」, 「새가정」, 「주택」(여원사), 「새로운 주택」, 「全國住宅實態調査-第1次서울地區 集計結果」(대한주택공사, 서울대학교), 「住宅實態調査報告書」(건설부)이며, 계획안은 총 66개, 개인주택은 총 33개이다.

계를 어떻게 형성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모색되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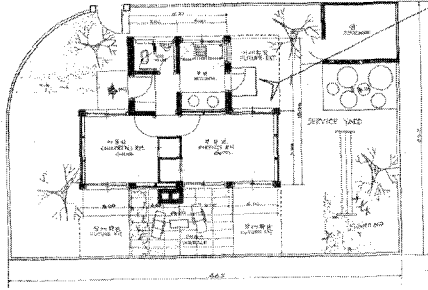


그림 5. 1959년 보사부주최 전국주택 현상설계안 도시자조주택 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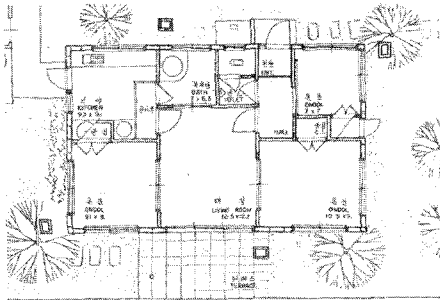


그림 6. 1959년 보사부주최 전국주택 현상설계안 도시국민주택 가작

이러한 모색이 드러나는 것이 室名稱과 평면구성이다. 먼저 室名稱에 있어서는 안방, 건넌방, 마루 혹은 온돌, 다다미 등의 재래의 室名稱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 한편⁷⁾ 1958년과 1959년에 이루어진 전국주택설계현상안을 살펴보면, 58년에는 44%, 59년에는 65%의 높은 비율로 어린이방이 구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린이방이라는 실명칭이 나타나는 계획안을 보면 거실, 침실, 부부실 등의 명칭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평수가 9평인 자조주택의 경우 방 2개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민자조주택의 경우 5개 안중 4개 안이 부부실과 아동

실이라는 명칭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실명칭으로부터 보사부주최의 ‘전국주택현상설계안’은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되는 근대적인 가족상을 상징하고 계획된 주택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평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室配置에 있어서 대부분의 案들이 직사각형 평면을 짧은 변을 따라서 兩分하고 앞쪽은 주요 居室, 뒤쪽은 부엌 등의 서비스기능 및 한 개 정도의 거주실을 두고, 앞쪽의 주요 거주실 부분에 있어서는 마루를 중심으로 방들이 양쪽으로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수가 적은 9평 자조주택의 경우 방 2개, 15평의 국민주택을 비롯하여 평수가 더 큰 경우에는 방이 3개로 늘어나고 더하여 거실(마루) 공간이 첨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이 시대 주거가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 부엌, 화장실 등의 조리, 배설 공간 및 부부와 자녀의 침실분리 요구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이 만족이 된 후에 가족단란 및 접객 등을 위한 거실이 구비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침실분리’에 대한 강한 욕구는 결과적으로 거실이 개실들의 중심에 오는 실배치양상을 확립시키는데 일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어린이방의 定着과 住居에 대한 影響

近代後期에 정부의 주도하 마련된 계획안들은 이후 관에서 대량으로 공급되는 공영주택에 반영되어 확산되었으며 민간 공급 주택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물리적 실체의 확산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계획원리와 이념의 확산 역시 초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1960년대 후반에 가면서 都市型韓屋, 國民住宅 등 기존주거에서 자녀실 혹은 세방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을 증축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일어난다.

7) 1956년에 『建築』지에 실린 ‘간편한 주택설계’ 특집 7건.

하지만 이렇게 실체로서의 어린이방(자녀방)이 확산되고 정착되는 반면 ‘어린이방’이라는 실명칭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개념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침투하여 일상화됨으로써 논의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近代前期의 담론들이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제로도 일부 계층에게만 수용되었던 것이었기에 近代後期에 이르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담론이 다시금 제기될 필요성이 나타났던 것이다. 한편으로 이상적인 ‘어린이방’ 개념과 현실과의 부조화 역시 ‘어린이방’ 담론이 사그러드는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좁은 평면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轉用的인 실사용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주택 규모가 커지고 마루 공간에서의 난방이 해결되기까지 지속되었다.

한국의 近代後期에 있어서의 어린이방 정착 양상은 비록 近代前期에 어린이방이 도입될 당시에 주장되었던 ‘어린이를 위한’ 논리와는 달리 부부-자녀간 실 분리 원칙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나, 이 원칙 역시 근대적 가족관 형성 기반인 근대적 어린이 개념이 그 바탕에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가족관을 바탕으로 계획된 공영주택의 보급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새로운 어린이관 및 그에 따른 부부관과 가족관의 변화가 한국 근현대 주택에 있어 거실중심형 평면이 정착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등 주거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근대의 ‘發展’, ‘進化’라는 개념은 발전가능태로서의 어린이에게 가치를 부여하였고, 자급자족적인 공동체의 붕괴와 산업화에 따른 근대적 가족의 탄생은 노동력, 생산력으로 간주되었던 어린이를 부양대상으로 변화시켰다. 이

외에도 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어린이를 둘러싼 논의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학교와 가정이라는 제도의 탄생은 가족에게도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근대기의 새로운 어린이 개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주거 변화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첫째, 어린이 자체에 대한 인식 변화에 의거한 주거의 변화로는 근대전기 일부 주거에서의 어린이방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어린이가 사회의 어엿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자립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어린이방의 계획에 대한 다양한 원칙 역시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둘째,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주거의 변화로는 접객위주의 주택구성에서 탈피하여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주거가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한편 어린이를 위하여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사상에 힘입어 내외유별적인 생활양식이 점차 소멸되고 부부침실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近代後期에는 부부와 자녀의 침실 분리가 강력하게 제기되며 이것은 이 시기의 계획안 및 이 계획안들을 바탕으로 설계된 공영주택안에 반영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近代前期의 어린이방은 가족관계의 변화보다는 어린이의 새로운 특성에 대한 인식 변화에 의거하는 경향이 컸기 때문에 주거 안에서의 독립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어린이방을 위한 계획적 요소를 비교적 충실히 지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近代後기로 가면서 약화되며 어린이방의 절대적인 위치나 환경적 계획보다는 부모와 이성 자녀 등의 가족관계가 어린이방의 실배치 계획에 있어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게 된다. 또한 초기 계획안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어린이방’이라는 실명칭은 점차 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초기에 나타난 理想으로서의 어린이방 및 그 계획원칙이 現實과 타협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계획 원리 자체의 매력과 호소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어린이방'이라는 실명칭은 점차로 소멸되는 과정을 겪게 되지만 부부-자녀간 침실분리에 대한 강한 욕구에 힘입어 실제로서의 어린이방은 근대후기에 이르러 정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近代後期에 관 주도로 실시된 계획안이 제시한 주거평면이 공영주택에 그대로 반영되어 보급된 것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계획안들은 부부-자녀간의 침실분리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작은 규모의 평면에서 이 원칙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부부침실과 자녀실 사이에 거실(마루) 공간을 두는 것이 유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한국 근현대 주거의 일반형이라 할 수 있는 거실중심형 평면이 정착되게 된 諸 원인 중 하나에 새로운 어린이 개념 및 이것을 바탕으로 형성된 새로운 가족관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5. 홍형욱, 「한국 전통주거생활 연구(Ⅱ)-가족내 인간관계의 구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논문집』 제14집, 1985.
6. 이정덕, 「유교적 가족윤리의 해체 전기에 있어서의 가족윤리 실상」,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7호, 2000.

<참고문헌>

1. 연속간행물 : 『東亞日報』, 『朝鮮日報』 및 기타 일반 잡지, 『朝鮮と建築』, 『住宅』, 『建築』, 『주택』, 『공간』
2. 현대여성 생활전서 제11권 『주택』, 여원사, 1960.
3. 안영배, 김선균 편저, 『새로운 주택』, 寶晉齋, 1964.
4. 김혜경, 「일제하 “어린이기”의 형성과 가족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사회학과 사회학 전공, 1998.